

석사학위논문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과의 관계

지도교수 고 명 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 애 순

2001년 8월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과의 관계

지도교수 고 명 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고 애 순

고애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1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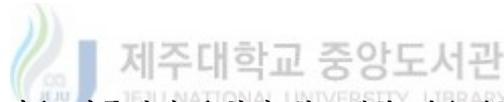
<국문초록>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과의 관계

고 애 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고 명 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체제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여, 가정생활의 유연한 적응력으로 아동들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처치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1 가족체제 유형에서 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유형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유형 차례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II. 가족체제 하위요인들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Ⅱ-1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2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304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는 전산처리 되었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F 검증을 하였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제 유형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준다. 즉 균형형을 이룬 가족의 아동이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높다.

둘째,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서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연결, 분리, 밀착, 이탈 차례로 높다.

셋째,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서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융통, 혼란, 구조, 경직의 차례로 높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이 가족체제에 의해 학습된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을 규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아동의 행동은 가족이라는 장에서 성장하면서 조건화되고 학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을 지도하는데 그가 속한 가족체제를 조명해 보아야 하고, 가정에서는 균형을 이룬가족 체제를 위한 가정환경 구성에 가족 구성원 전원이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목 차

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와 가설	2
Ⅱ. 이론적 배경	4
1. 가족의 체제의 특성과 모형	4
2.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9
3. 학교 생활 적응과 부적응	13
4. 가족체제와 학교생활 적응행동과의 관계	14
Ⅲ. 연구 방법	18
1. 표집 대상	18
2. 측정도구	18
3. 채점방식과 자료처리	19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22
1. 가설 I의 검증	22
2. 가설 II의 검증	24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30
1. 요약	30
2. 결론	33
3. 제언	34
참 고 문 헌	35
영 문 초 록	38
부 록	41

<표 목 차>

<표Ⅱ-1>가족 응집성의 지표	10
<표Ⅱ-2>가족 적응성의 지표	12
<표Ⅲ-1>표집대상 아동수	18
<표Ⅲ-2>응집성·적응성 수준별 점수 범위	20
<표Ⅳ-1>가족체제와 유형과 영역별 학교생활 적응행동 경향	22
<표Ⅳ-2>가족체제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행동 경향	23
<표Ⅳ-3>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른 영역별 학교생활 적응행동 경향	24
<표Ⅳ-4>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행동 경향	26
<표Ⅳ-5>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른 영역별 학교생활 적응행동 경향 ..	27
<표Ⅳ-6>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행동 경향	28

[그림 목 차]

[그림Ⅱ-1] Olson의 가족체제 모형	7
[그림Ⅲ-1] 가족체제 유형별 구분	20

<부 록>

<부록 1>가정생활	43
<부록 2>학교생활	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의 형성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소속되는 최초의 사회집단으로 거기에서 성장하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게되며,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때의 경험이 아동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산업발달과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국민생활이 향상되면서 가정환경이 크게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결과 부모와 자녀의 대화 단절, 세대차의 문제, 개인의 고립 및 소외 문제 물질 만능 주의에 따른 인간 경시 풍조 등이 만연해 가는 현실이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이 가족체제의 병리를 문제 행동으로 나타내어 학교에 다니기를 싫어하거나 학교 생활에서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여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바람직한 상호작용으로 자녀와 부모사이에 건전한 세대 경계를 형성하고 유연한 적응력을 발휘하면 아동이 안정된 사회생활 적응을 하게 되므로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느냐 하는 가족체제의 기능성이 대두된다.

즉 개인이 어떻게 가족환경 내에서 기능하며 또 가족행동이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과, 역으로 가족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Olson 등 (1979, 1983)이 가족 구성원간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차원에 따른 가족체제 모형을 고안하였으며 인간의 성장, 발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생활하던 아동은 최초로 학교 교육이라는 사회집단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지적 기능의 발달이나 기술의

습득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동화하고 적응성을 지니는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여건으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 상호간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흥미를 잃어 학업성취도를 낮게 하거나 학교 행사 때는 소외 의식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가족 이론가들은 학교생활 적응행동에는 특정한 가족양식과 과정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가족 전체의 병리를 나타내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가족체제의 어떤 측면이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을 높이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개별적인 이론들로부터는 가족체제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통한 16년간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제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여, 가정생활의 유연한 적응력으로 아동들의 바람직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처치를 하는데 필요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와 가설

가족 또는 가정환경이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아동 행동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가족의 체제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체제의 어느 한 가지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족역동성의 상호 독립적인 여러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이론적 입장들이 대두하였는데 이들의 주된 특징은 바로 가족

체제를 유형화한다는 점이다.

Olson, Russell 및 Sprenkle(1979)의 유형은 기능과 역기능의 연속선상에서 모든 일반적인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기능적인 가족체제에 속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적응 행동에 속할 것이라는 점이 가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족체제의 유형론 중에서 가족의 역동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Olson등(1983)의 개념모형을 토대로 하여 가족체제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문제와 가설을 정하였다.

첫째,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가족체제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인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1 가족체제 유형에서 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유형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유형 차례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II. 가족체제 하위요인들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1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2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의 유형에 의한 가족체제 유형이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Olson 등의 가족체제 모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가족의 체제의 특성과 모형

가족을 하나의 사회체제, 또는 기능적인 단위로 보는 입장은 일반체제이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볼 때 가족체제는 하위체제의 복잡한 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을 하나의 사회적 단위 체제로 볼 때 그 체제 내부에는 가족구성원 각자가 하나의 하위체제가 되며, 부부, 부모-자녀, 형제간의 이원적 관계로 각기 하위체제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러한 각각의 하위체제들이 특정한 위계를 이루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전체로서 유지되는 것이 가족체제이다(Minuchin,1974)

여기서 가족체제가 다른 체제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이와 같은 하위체제들 간에 매우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하위체제도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와 전체체제 속에 있을 때는 서로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모자의 이원적 하위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성격은 부모가 함께 있는 삼원적 체제 안에서의 상호작용 성격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임용우,1984)

이와 같은 가족체제는 하위체제들 간의 상호 연쇄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그것은 체제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이점에 대해 Foley(1979)는 “두 사람의 사이의 정서적 균형의 강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약할 때, 체제의 평등을 회복하고 안전을 얻기 위하여 제 3의 인물, 혹은 사물이 개입할 수 있다.” 는 공리로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족체제는 하나의 개방체제로서 가족외부와 계속적으로 투입을 주고받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는 가족의 안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 때 동일 정체성이 의미하듯 주어진 수준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정체된 상태일 때 안정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안정 상태란 항상 어느 정도 변화하면서 체제를 스스로 유지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가족체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체제들, 그리고 외부체제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역동적이다. 따라서 가족 체제이론가들은 가족의 역동적 특성을 설명하고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임용우,1984).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족 관계가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제석봉, 1989). 특별히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과정인 가족역동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동발달 및 가족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이 임상에 적용되면서부터 개인이 나타내는 병리가 아동기의 가족 관계와 관련 있음이 지적되긴 했지만 인간의 문제를 주로 개인 정신적 차원에서만 다루었으며 개인의 나타내는 문제는 정신내적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했다(송성자,1987).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가족치료 이론은 개인의 병리가 단순히 개인의 정신내적 갈등에서 발생된다고 보기보다는 잘못된 가족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였다(서영준,1997)

따라서 가족 이론가 및 가족 치료자들은 가족체제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원인이 되는 가족역동성을 개념화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1979년에 Olson, Russell 과 Sprenkle은 가족역동성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합하여 Circumplex Model라는 하나의 통합적 개념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가족치료 이론 및 가족 관계문헌에서 추출한 개념들을 세 가지 개념으로 통합하였다 (Olson,1983). 그 세 가지 개념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그리고 가족의사소통이다. 이

들 중 Olson의 가족체계 모형으로 직접 도식화됨으로써 가족체계의 기능을 유형화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차원이며 의사소통은 이 모형에 직접 도식화되지는 않고 가족기능을 추정할 수 있는 촉매역할은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를 유형화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개념을 중심으로 Olson의 가족체계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Olson 등(1983)은 가족체계 이론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을 윤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각의 용어들이 서로 개념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족과정 또는 가족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차원, 즉 응집성과 적응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이 두 차원으로서 상호 조합을 이루는 유형논적 모형을 발전시켰다. 이들의 모형에서의 응집성은 이탈, 분리, 연결, 밀착의 4가지 수준으로, 적응성은 경직, 구조, 융통, 혼란의 4가지 수준으로 각각 구분된다(서영준,1997).

이러한 2가지 차원과 8가지 수준의 체계적 특성은 서로 연결되어 모두 16가지의 가족유형으로 분류되지만, 그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3가지 유형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Olson, Russell & Sprenkle,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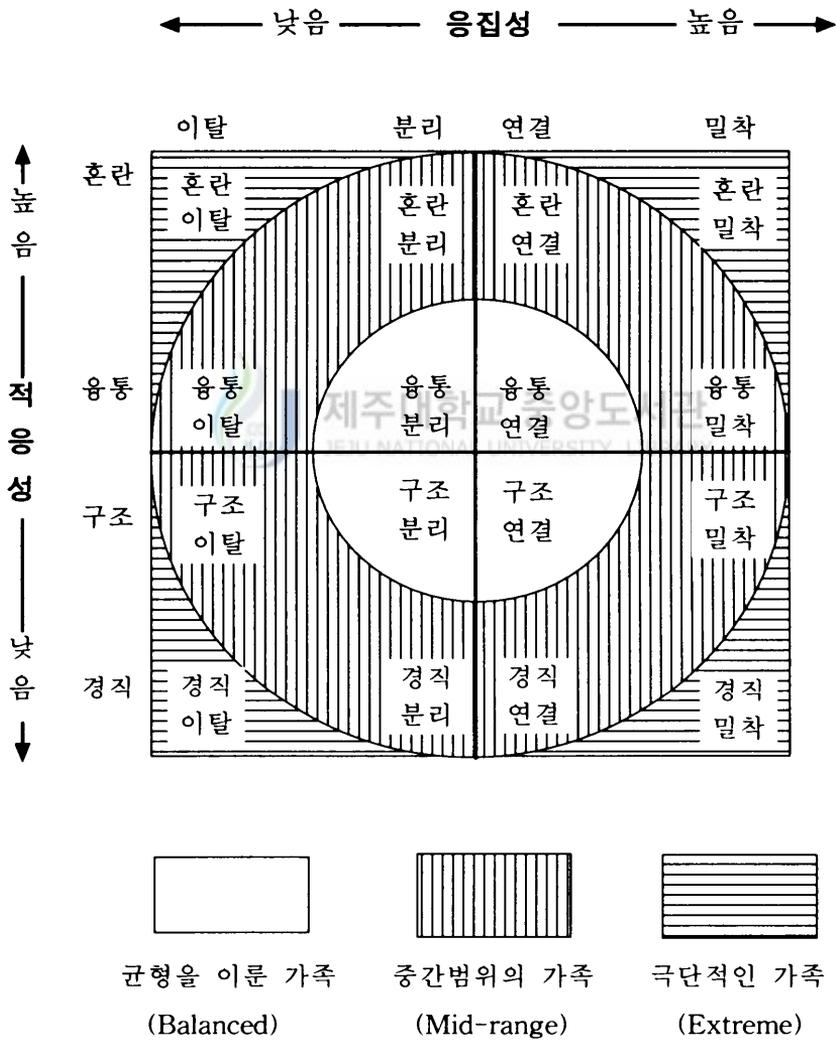
[그림 II-1]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3가지 유형집단이란 양 차원에서 중간의 두가지 수준에 속하는 집단(4가지 균형을 이룬 가족유형), 양 차원에서 모두 양 극에 속하는 집단(4가지 극단적인 가족유형), 어느 한 차원에서만 극단적인 수준에 속하는 집단(8가지 중간 범위의 가족유형)의 3가지를 말한다.

이와 같은 가족의 유형논적 모형은 가족이 가지는 심리 사회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어 설정된 것이다.

즉 가족구성원들이 보이는 심리적 유대가 아주 강하거나 거의 없을 때, 그리고 가족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변화를 철저히 거부하거나 너무 심하게 유동적일 때 가족 전체는 물론 개인의 발달에 역기능적이라는 가정을 한다. 이에 반하여 중앙에 있는 4가지 유형, 즉 적절한 수준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보이는 균형을 이룬 가족은 가족과 개인에게 모두 기능적이라고

설명한다 (Olson et al., 1979, 1983). Olson등(1983)이 제시한 가족체제모형은 [그림Ⅱ-1]와 같다.

[그림Ⅱ-1] Olson의 가족체제 모형



※ 출처 : 서영준(1997)아동이 지각한 가족체제 유형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Olson 등의 모형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이제까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과는 달리, 가족의 특성과 가족의 기능사이의 관계를 곡선적인 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그림 II-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응집성의 축과 적응성의 축에서 각각 중간 부분이 건전한 가족임에 반하여 양극으로 갈수록 불건전한 기능을 지닌 가족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격 발달은 부모의 지지(support)와 통제(control)가 각각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적절수준의 이론(theory of optimum)'을 말한 Bronfenbrenner(1961)의 주장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임용우,1984).

Olson 모형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가족의 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라 유형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Olson et al, 1983). 즉 하나의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상태, 또는 가족구성원의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변화를 조정하고 발달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제 자체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Olson(1993)은 그들의 모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문화권에 따라 가족에 대한 표준적인 기대가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비록 체제의 각 차원에서 극단적인 수준에 머무는 가족일지라도 가족구성원들이 그러한 가족체제를 인정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족기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이는 마치 현실적인 자아상과 이상적인 자아상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심리적 부적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Rogers(1951)의 생각과 유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임용우,1984).

이상과 같이 가족의 심리 이상적인 특성을 응집성과 적응성의 관점에서 분류, 측정하고 이를 가족구성원들의 행동과 관련시키려는 노력은 Moos(1974)의 가정모형 척도제작과 그에 따른 가족 유형론에서도 발견된다. Moos(1974)의 가정환경 척도에서는 본래 가정환경을 인간관계 차원, 개인성장 차원, 체제유지 차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으나 가정환경의 척도의 각 차원은 Olson 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Moos와 Moos(1976)는 가정환경을 가족기능과 직선적인 관계에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도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과 정상적인 가정을 비교한 연구 결과는 문제가 있는 가정이 응집성이 낮거나 (갈등지향적) 높았으며 (표현지향적), 적응성이 낮은 것으로 (구조지향적) 보고하고 있어 Olson 등에 의한 가정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임용우,1984).

2.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체제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분류하는데 먼저 가족의 응집성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응집성이란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결속으로 정의되며(Olson et al, 1983)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Olson, Russell 과 Sprenkle(1983)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되는 응집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가족의 응집성은 정서적 유대, 가족의 경계, 연합, 시간, 공간, 친구, 의사결정, 흥미와 오락의 8가지 구체적인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가족체제의 차원이다.

가족 특성과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곡선적으로 설명하는 가족체제 모형에 의하면 응집성 수준이 적절할 때, 즉 응집성이 중앙수준(분리와 연결)에 위치할 때 가족기능이 가장 효과적이며, 극단의 수준(이탈과 밀착)에 위치할 때에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응집성 수준이 가장 높은 밀착된 가족에서는 가족성원들의 서로에게 지나치게 관여돼 있고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충성과 일치에 강조된다. 반면, 응집성 수준이 매우 낮은 이탈된 가족에서는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지나친 자율이 강조되기 때문에 개인의 일은 그 자신의 문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서영준,1997)

이러한 8가지의 하위영역들에 의해 측정되는 가족응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순서로 이탈, 분리, 연결, 밀착의 4가지로 구분되며 이 4가지 수준에 입각하여 8가지의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Olson et al., 1979, p.165)는 <표 II-1>과 같다.

<표Ⅱ-1> 가족 응집성의 지표

변인		수준	이탈	분리	연결	밀착
		정서적 유대	매우 낮음	낮음-중간	중간-높음	매우 높음
가족의 경계	외부경계		개방적	반개방적	반개방적	폐쇄적
	내부경계		폐쇄적	반개방적	반개방적	개방적
	세대간의 경계		경직	명확	명확	혼란
연합	부모-자녀 연합		약함	명확	강함	강함
시간	홀로 보내는 시간		최다	중요	허용	없음
	함께 보내는 시간		없음	중요	중요	최다
공간	사적 공간		최다	많은	적음	없음
	가족과의 공간		거의 없음	적음	많음	최다
친구	개인친구		많음	있음	있음	거의 없음
	가족친구		없음	있음	있음	많음
의사결정			항상 각자결정	대부분 각자결정	대부분 가족과 함께 결정	항상 가족과 함께 결정
흥미와 오락			주로 개별활동	개별활동 지지	가족활동	거의 가족활동

Olson, Russell 및 Sprenkle(1983)은 임상 경험을 통하여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가족은 흔히 응집성 차원의 극단적인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응집성 수준이 아주 높은 밀착수준일 때 그 가족은 지나치게 상호동일시하여 가족내에서 충성과 합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개별화가 방해받기 쉽다. 반면에 응집성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지나친 자율이 강조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원과의 접촉 및 개입이 제한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Olson등의 개념모형 속에서의 응집성은 중간 수준일 경우에 한해서 각 개인은 다른 가족원들과 적절히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관련을 가지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임용우,1984).

다음은 가족체제의 역동성 차원에서 적응성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가족 적응성은 상황적·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power structure), 역할관계(role relationship), 관계규칙(relationship rules)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제의 능력으로 정의되며(Olson et al., 1979

& 1983) 가족성원들이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에 Olson, Sprenkle, Russell(1979, 1983)은 가족의 적응성을 “상황적, 발달적 압력에 반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 이라고 정의하면서 적응적인 가족체제는 안정과 변화의 균형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융집성과 더불어 적응성을 가족체제를 진단함에 있어 중요한 차원으로 삼고 있는 Olson등은 적응성 차원에 포함되는 하위 영역들로서 가족내의 권력(주장, 통제, 규율) 교섭양식, 역할관계 및 관계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인들로 구성되는 적응성의 차원에서 가족체제는 경직, 구조, 융통, 혼란의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적응성에서 중간 수준인 구조와 융통에 속하는 가족체제는 가족 능력이 효율적인 체제이며, 극단적인 두 가지 수준인 경직과 혼란에 속하는 가족체제는 가족의 생활주기가 바뀔 때 따라서 가족원들의 행동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Olson등은 내세운다.

가족체제 모형에서는 가족 적응성을 진단·평가하기 위해서 6가지의 하위영역들이 사용된다. 즉, 가족성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주장(assertiveness), 통제(control), 부모의 자녀훈육 (discipline), 가족성원들 간의 협상능력(negotiation styles), 역할확립 및 역할분담(role relationship), 가족규칙의 명확성 및 융통성(relationship rules)의 변인들이다.

이러한 6 가지의 하위 영역들에 의해 측정되는 가족 적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순서로 경직(rigid), 구조(structured), 융통(flexible), 혼란(chaotic)의 4 가지로 구분되며 이 4가지 수준에 입각하여 6 가지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Olson et al., 1979, p. 166)는 <표 II-2>와 같다.

<표 II-2> 가족 적응성의 지표

수준 변인	경직	구조	융통	혼란
주장	수동적 공격적	단호함	단호함	수동적 공격적
통제	권위주의적 리 더쉽	민주주의적 리 더쉽	동등한 리더쉽	리더쉽이 부재
훈육	권위주의적 매우 엄격	민주주의적	민주주의적	방임적. 매우 관대
협상	제한된 협상. 문제 해결 능 력 빈약	구조적 협상. 문제 해결 능력 좋음.	유연한 협상. 문제 해결 능력 좋음	무한정 협상 문제 해결 능 력 빈약
역할	경직된 역할	원만한 역할분 담	자연스러운 역할 변화	극적인 역할변 화
규칙	경직된 규칙, 명확한 규칙이 많고 규칙 준 수에 엄격함	규칙이 변화함. 목계적인 규칙 보다는 명확한 규칙이 많음.	규칙변화 가능. 목계적인 규칙이 명확한 규칙보다 많음.	규칙변화가 극 적. 목계적인 규칙 이 많음.

가족 적응성이 가장 낮은 경직된 가족의 경우 엄격한 규칙의 준수 및 경직된 역할 구조, 권위주의적인 리더쉽 밑에서 가족성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은 제한을 받아 가족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기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역시 가장 높은 적응성을 보이는 혼란 된 가족의 경우에도 무질서한 역할 분담, 일관성 없는 가족규칙으로 인해 가족들은 책임의 한계를 알지 못하며 가족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반면, 중앙수준의 적응성을 보이는 구조·융통에 속하는 가족의 경우, 민주주의적인 리더쉽 밑에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과 규칙이 변화되고 가족의 문제해결능력이 좋기 때문에 기능적이다(서영준,1997)..

이처럼 Olson, Sprenkle, Russell(1979,1983)만이 가족의 적응적 능력을 안정과 변화의 균형 속에서 찾으려 했던 것을 아니다. Barnhill(1979)은 8가지 건강한 가족기능의 차원을 제시하는 가운데 경직성과 유연성, 안정성과 혼란이 가족체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준거점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제까지의 가족의 정신 건강과 병리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변화의 조건과 과정에 적절히 탄력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유연성을 가진 가족, 그리고 가족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일괄성을 가지며 책임한계가 명확한 안정성을 지닌 가족이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ckerman(1966)역시 존재성과 안정성이 적절히 보장될 때 가족은 아동의 건전한 자아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분위기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3.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응

학교 기관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교육적 영향을 통틀어서 학교생활이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여러 행사 등이며 이러한 학교생활에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생 상호간의 관계, 규칙준수가 있고 학급생활 등도 그 구성 요인이 된다 (민경란,1984).

적응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Gates(1950) 등은 적응은 개체가 환경과의 동화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행동을 발전시키는 계속적인 과정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행복감에 넘쳐 있고, 사회적으로는 당면 문제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부적응 행동을 정원식(1984)은 욕구는 충족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충족이 지연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욕구의 충족이 저지 당했을 때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융통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상반응으로 해결하려할 때라고 정의하였다.

학교생활에 어떤 것을 적응수준이 높고 낮은 것으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 민영순(1978)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준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하는 경우를 학교생활 적응으로 보고, 그렇지 못한 경우

를 부적응이라 하여 학교생활의 조화와 만족에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의 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의 교과 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 등에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학교 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백종흠(1984)은 성별간에 학교생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지역간에는 도시 학생이 농촌 학생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으며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활동, 자기통제의 학교 생활 적응 영역에서는 성별과 지역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 생활 적응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가족체제유형과 학교생활 적응행동과의 관계

김미희(1997)는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과는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 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은 곡선 관계 가설의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나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선관계 가설의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백종흠(1984)은 성별간에 학교생활 적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지역간에는 도시 학생이 농촌 학생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으며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활동, 자기통제의 학교 생활 적응 영역에서는 성별과 지역간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 생활 적응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문선모(1984)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가정의 종교 및 학생이 지능, 행동발달,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학교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성별 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에 다소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강주완(1983)은 자아개념 수준에 따른 적응 경향에 대한 연구에서 장래 활동, 가정활동, 사회활동, 건강생활 및 교우생활, 학교생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교생활 적응 수준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간의 학업성적 차이는 담임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습 활동과의 관계, 규칙준수, 학교행사관계 등 전 영역에서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학업성적이 높고,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상필, 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과 학업성적과의 관계에서 고교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과정에서 문제가 있다(최순복, 1985).

중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 학생은 부적응 학생보다 지적활동에 있어서 흥미와 관심을 갖는 반면 부적응 학생은 학습활동에서 흥미를 잃고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안영복, 1984)

일반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은 성별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지역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고 학생의 지능, 행동발달, 교과학습발달상황, 가정환경은 학교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Moos와 Moos(1976)는 가족환경을 가족기능과 직선적인 관계에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과 정상적인 가정을 비교 연구 하였다. 그 결과 문제가 있는 가정이 응집성이 낮거나(갈등지향적) 높았으며(표현 지향적), 적응성이 낮은 것(구조지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Olson등에 의한 가정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Druckman(1979)은 비행청소년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치료를 해 나가면서 Moos의 척도를 사용하여 대상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의 응집성이 낮은 반면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Olson 모형의 이탈·혼란의 가족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Russell(1979)은 높은 기능을 가진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정과 낮은 기능을 가진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정으로 연구 대상 집단을 나누어 가족체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설대로 높은 기능의 가족이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차원에서 모두 적절한 점수를 보였고, 낮은 기능의 가족은 두 차원에서 모두 극단적인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가출 청소년을 가진 가정과 정상 가정을 비교한 Bell(1982)의 연구에서도 가출가정이 정상가정에 비하여 이탈 및 혼란 된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Olson, 1983).

한편, 최병일(198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가족체제 유형과 도덕적 판단 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lson의 가족체제 유형에 근거한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 범위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의 순서로 도덕적 판단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적절한 수준에 있을 때 도덕성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응집성의 차원에서는 분리·연결 수준에 있을 때, 적응성의 경우에는 유연·구조화 수준에 있을 때를 말한다. 이는 모두 응집성, 적응성이 높다거나 낮은 경향보다는 적절한 중간 수준일 때 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족체제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 즉, 응집성 차원과 적응성 차원이 모두 도덕적 판단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적응성차원이 응집성 차원보다 유의 있는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응성을 이루고 있는 하위변인 즉, 가족내의 권력(주장·통제·규율), 교섭양식, 역할관계, 대화 유형 및 관계의 규칙들이 보다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영준(1997)의 연구에서 Olson 등의 개념모형을 토대로 하여 가족체제와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아동의 부적응 행동 수준은 극단적인 가족체제 유형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수준이 높았

으며, 가족체제의 하위 영역인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수준에서는 높은 밀착집단에서 낮은 이탈집단으로, 경직 집단에서 혼란 집단으로 갈수록 아동의 부적응 행동 수준은 높아졌다고 하였다.

임용우(1984)의 연구에서는 Olson의 분류한 세 가지 종류의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 행동 영역에 있어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lson의 가족체제 유형에 근거한 가족체제의 유형에 따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 범위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으로 갈수록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자의 경우는 모든 부적응 행동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불안강박행동, 공격행동, 분열적 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행동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가족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Olson의 모형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지지해 주는 실증적인 연구들이다. 그러나, 가족의 기능이나 역기능을 가족체제 진단의 준거로 삼는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유무에 따라 가족을 정상 가정과 비정상가정이라는 양 집단으로 분류하는 연구 방식은 일반적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족체제의 특징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결함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Olson의 모형에 따른 가족체제의 유형이 가족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가족체제에 속하는 구성원이 어떤 행동을 어떤 수준에서 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가족체제와 청소년, 가족체제와 아동의 부적응에 대하여 임용우와 서영준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바로 Olson의 모형에 따른 가족체제 유형(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 범위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과 학교생활 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여기에서는 표집대상 측정도구 그리고 채점방식과 자료처리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표집 대상

연구 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이유는 가족체제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가족생활을 묻는 검사문항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중 자료회수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304부만이 최종통계 자료로 사용되었고 그 현황을 제시하면 <표 Ⅲ-1>와 같다.

<표 Ⅲ-1> 표집대상 아동수

구 분	인 원	%
남	149	49.0
여	155	51.0
계	304	100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두 가지이다. 즉 하나는 가족체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가정생활 응답지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학교생활 응답지를 사용하였다.

첫째, 가족체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임용우(1984)가 Olson 등(1983)이 제작한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평가 척도(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 : FACES II)'를 번안하여 서울 시내 고

등학교 1학년 남·여에게 사용한 것을 풀이하여 재인용하였다.

FACES II에 포함된 문항은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응집성의 8개 하위 영역 및 적응성의 6개 하위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응집성 16, 적응성 14,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아동들이 직접 반응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식 5단계 척도에 의한 방식을 따랐다.

둘째, 학교생활 적응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이상필(1990)이 전국 8개 도시 5·6학년에게 사용하였던 학교생활 적응척도로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 영역을 25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3. 채점방식과 자료처리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에 대한 점수 범위와 이 점수로 인하여 결정되는 가족체제의 유형의 종류는 [그림Ⅲ-1]과 같다.

첫째 가정생활의 채점방식은 다음과 같다(Olson et al, 1983).

응집성 차원은 부정적인 문항(문항번호 : 3, 9, 15, 25, 29)의 총점과 긍정적인 문항의 총점을 별도로 채점한 후에 긍정적 문항의 총점에서 부정적 문항의 총점을 빼고 그 점수에 36을 더하면 최종점수가 된다. 여기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16 - 80 이다.

적응성 차원의 경우는 긍정적 문항의 총점에서 부정적 문항(문항번호 : 24, 28)의 총점을 빼고 그 점수에 12를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한다. 적응성 차원의 점수범위는 15 - 70이다.

본 연구 자료에 의한 양차원의 가족체제 수준별 분류산정 방식은 FACES II 편람에 제시된 미국의 전국규준 분류점 산정방식을 따라 <표Ⅲ-2> 와 같고. 신뢰도는 응집성이 .77, 적응성은 .62로 나타났다.

<표 III-2> 응집성 · 적응성 수준별 점수 범위

응집성 수준	이탈	분리	연결	밀착
범위	49이하	50-58	59-66	67이상
적용성 수준	경직	구조	융통	혼란
범위	37이하	38-44	45-51	52이상

이상의 결과로서 본 연구의 분류 대상이 되는 가족체제의 기본적인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은 점수 범위에 따라 구분되었다.

균형을 이룬 가족(가족체제유형 B)은 응집성 점수가 50-66이면서 동시에 적응성 점수가 38-51인 경우이며, 중간 범위의 가족(가족체제유형 M)은 응집성 점수가 50-66이면서 동시에 적응성 점수가 37이하, 또는 52이상인 경우, 그리고 적응성 점수가 38-51이면서 동시에 응집성 점수가 49이하 또는 67이상인 경우가 되고, 극단적인 가족(가족체제 유형E)은 응집성 점수가 49이하 또는 67이상인 면서 동시에 적응성 점수가 37이하인 또는 52이상인 경우로 구분되었다.

이상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III-1]와 같다(서영준,1997).

[그림 III-1] 가족 체제 유형별 구분



[그림III-1]에 의하면 응집성에서 가운데 분리, 연결수준과 적응성에서 구조, 융통인 범위 안에 점수가 해당되면 균형을 이룬 가족 B유형에 속하고, 응집성 점수가 가운데인 분리, 연결 수준이나 적응성에서 경직이나 혼란에 속할 때와 적응성에서 가운데인 구조 융통에 속하나 응집성에서 이탈이나

밀착에 해당되면 중간 범위의 가족 M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하여 나올 수 있는 M유형인 경우는 윗 그림의 양쪽에 4 가지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응집성 점수가 이질 또는 밀착에 에 해당되면서 적응성 점수가 경직, 혼란인 경우에 극단적인 가족 E형에 속하여 4 가지 경우가 생긴다.

둘째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영역은 담임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주 관계, 학교행사 관계 5개의 영역으로 되어있다. 각 하위영역의 문항 수는 모두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되어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 단계척도이다. 채점방식은 최고점이 100점으로 하고 최하위점수를 2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상필(1990)의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의 신뢰도는 담임교사와의 관계 .82, 교우관계 .85, 학습활동 .64, 학교행사 관계 .75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처리는 전산처리 되었으며, 가설 I · II을 검증하기 위하여 F 검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가설 I의 검증

첫 번째 가설 「I-1가족체제 유형에서 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가족, 극단적인 가족유형 차례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 것이다」 은 가족체제 유형인 균형을 이룬 가족(B), 중간유형의 가족(M), 극단적인 가족(E)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하위 요소인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 이상 다섯 가지와의 관계로 F검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표IV-1>와 같다.

<표IV-1>가족체제 유형과 영역별 학교생활 적응행동 경향

영역별 학교생활	가족체제 유형	평균(M)	표준편차(SD)	F
담임교사와 관계	B	17.76	4.16	5.15**
	M	17.57	4.10	
	E	15.73	4.30	
교우관계	B	16.04	2.38	9.62***
	M	16.17	2.70	
	E	14.41	3.01	
학습활동	B	15.88	3.19	7.351***
	M	15.58	3.39	
	E	13.98	3.07	
규칙준수	B	16.27	3.05	8.19***
	M	16.55	2.94	
	E	14.62	2.69	
학교행사	B	15.90	3.60	7.23***
	M	14.98	3.04	
	E	13.92	4.38	

** : P <.01 *** : P<.001

<표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체제 유형과 학교생활하위 영역 적응 행동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체제 유형과 학교생활 하위 영역 담임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균형을 이룬 가족(M=17.76), 중간범위의 가족(M=17.57), 극단적인 가족(M=15.73),로 나타나서 균형을 이룬 가족이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우관계에서는 균형을 이룬 가족(M=16.04), 중간범위의 가족(M= 16.17), 극단적 가족(M=14.41)로 균형을 이룬 가족보다 중간범위의 가족이 학교생활 적응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학습활동에서는 균형을 이룬 가족(M=15.88), 중간범위의 가족 (M=15.58), 극단적인 가족평균이(M=13.98)로 균형을 이룬 가족이 학교생활 적응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규칙준수에서는 균형을 이룬 가족(M=16.27), 중간범위의 가족 (M=16.55), 극단적인 가족(M=14.62)로 중간범위의 가족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행사에서는 균형을 이룬 가족(M=15.90), 중간범위의 가족(M=14.98), 극단적인 가족(M=13.92)로 균형을 이룬 가족이 학교생활 적응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가족체제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행동 영역별과의 전체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M)과 F검증을 한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IV-2>가족체제 유형별 학교생활 적응행동 경향

가족체제유형	N	평균(M)	표준편차(SD)	F
균형을 이룬 가족 (B)	164	81.87	11.28	14.48***
중간범위 가족 (M)	84	80.88	11.76	
극단적인 가족 (E)	56	72.67	10.10	
계	304	79.91	11.70	

*** : P <.001

<표IV-2>에 의하면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체제별로 보면 균형을 이룬 가족((M=81.87), 중간 범위의 가족

(M=80.88), 극단적인 가족(M=72.67)로 균형을 이룬 가족의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이 높았다.

이처럼 균형을 이룬 가족은 적절한 응집성·적응성을 보이는 가족의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개인의 독립적 요구와 가족 일체감간의 적절한 수준을 제공하는 가족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적인 리더쉽 밑에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과 규칙이 변화되고 가족의 문제해결이 좋기 때문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가설 II의 검증

두 번째 가설 「II는 가족체제 유형의 하위 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하위 가설 「II-1 가족체제 유형의 하위 변인인 응집성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을 위해 가족체제 하위요인 응집성에서 4 가지 밀착, 분리, 연결, 이탈수준과 학교생활 적응행동 5 가지 영역별과의 관계를 F검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3>와 같다.

<표IV-3>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른 영역별 학교생활 적응 행동 경향

영역별 학교생활	응집성 수준	평균(M)	표준편차 (SD)	df	F
담임교사와의 관계	밀착	16.97	4.52	3	2.573
	연결	17.97	4.32		
	분리	17.53	3.90		
	이탈	16.00	4.16		
교우관계	밀착	15.94	2.98	3	7.489***
	연결	16.35	2.36		
	분리	15.81	2.61		
	이탈	14.11	2.52		

학습활동	밀착	15.71	3.30	3	7.853***
	연결	15.99	3.40		
	분리	15.66	3.10		
	이탈	13.26	2.65		
규칙준수	밀착	15.86	2.94	3	3.985**
	연결	16.73	3.18		
	분리	15.95	2.90		
	이탈	14.88	2.74		
학교행사	밀착	15.39	3.27	3	5.993***
	연결	16.02	3.36		
	분리	15.28	3.72		
	이탈	13.35	3.07		

** : P<.01

*** : P<.001

<표IV-3>에서 보면 응집성 수준과 아동의 학교생활 하위 영역 가운데서 담임교사와의 관계에는 연결(M=17.79), 분리(M=17.53), 밀착(M=16.79), 이탈(M=16.00) 순서로 적용도가 높아졌고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우관계에서는 연결(M=16.35), 밀착(M=15.94), 분리(M=15.81), 이탈(M=14.11), 순서로 적용도가 높아졌고 P<.001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습활동에서는 연결(M=15.99), 밀착(M=15.71), 분리(M=15.66), 이탈(M=13.26), 순서로 적용도가 높아졌고 P<.001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규칙준수에서는 연결(M=16.73), 분리(M=15.95), 밀착(M=15.86), 이탈(M=14.88), 순서로 적용도가 높아졌고 P<.01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교행사에서는 연결(M=16.02), 밀착(M=15.39), 분리(M=15.28), 이탈(M=13.35), 순서로 적용도가 높아졌고 P<.001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가설 「Ⅱ-1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가족의 응집성수준으로 전체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검증한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행동 경향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df	F
밀착	79.71	11.36	3	10.43***
연결	83.06	11.62		
분리	80.24	11.10		
이탈	71.61	10.06		

*** : P<.001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서 보면 연결(M=83.06), 분리(M=80.24), 밀착(M=79.71), 이탈(M=71.61)로 나타나고,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의 예측에서 응집성 수준에 따라 높게 나타나지 않고 연결수준이 가장 높은 적응행동 수준을 보였다.

이는 연결, 분리수준이 균형을 이룬 가족체제의 집단에 속하고 있어서 의사 결정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가 결정하고, 개별활동을 중시하는 가족 구성원이어서 결국 학교생활 적응에도 높은 평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응집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밀착이 연결 분리보다 낮게 나온 것은 이 수준이 가족의 정서적 유대는 매우 높으나 외부경계가 폐쇄적이고, 부모와 자녀간의 연합이 너무 강하여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충성과 일치를 강조하였던 극단적인 가족체제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두 번째 가설 「Ⅱ 가족체제 유형의 하위 변인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두번째 하위 가설 「Ⅱ-2 가족체제 유형의 하위 변인인 적응성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을 위해 가족체제 하위요인 적응성에서 4 가지 혼란, 융통, 구조, 경직수준과 학교생활 적응행동 5 가지 영역별과의 관계를 F검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IV-5>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른 영역별 학교생활 적응 행동 경향

영역별 학교생활	적응성 수준	평균(M)	표준편차 (SD)	df	F
담임교사와의 관계	혼란	17.09	3.93	3	3.571*
	융통	18.36	4.57		
	구조	17.18	3.79		
	경직	15.93	4.59		
교우관계	혼란	15.87	3.11	3	8.50***
	융통	16.66	2.35		
	구조	15.61	2.34		
	경직	14.27	2.84		
학습활동	혼란	15.44	3.23	3	7.186***
	융통	16.43	3.30		
	구조	15.34	3.07		
	경직	13.69	3.26		
규칙준수	혼란	16.24	2.85	3	6.033**
	융통	16.76	3.30		
	구조	16.00	2.70		
	경직	14.44	2.97		
학교행사	혼란	15.16	3.01	3	11.121***
	융통	16.64	3.64		
	구조	15.11	3.43		
	경직	13.09	3.03		

* : P<.05 ** : P<.01 *** : P<.001

<표IV-6>에서 보면 융집성 수준과 아동의 학교생활 하위 영역 가운데서 담임교사와의 관계에는 융통(M=18.36), 구조(M=17.18), 혼란(M=17.00), 경직(M=15.93) 순서로 높아졌고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우관계에서는 융통(M=16.66), 혼란(M=15.87), 구조(M=15.61), 경직(M=14.27) 순서로 적응도가 높아졌고, P<.001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습활동에서는 융통(M=16.43), 혼란(M=15.44), 구조(M=15.34), 경직(M=13.69), 순서로 적응도가 높아졌고 P<.001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규칙준수에서는 융통(M=16.76), 혼란(M=16.24), 구조(M=16.00), 경직(M=14.4

4), 순서로 적응도가 높아졌고 $P < .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교행사에서는 융통(M=16.64), 혼란(M=15.16), 구조(M=15.11), 경직(M=13.09) 순서로 적응도가 높아졌고 $P < .001$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적응성수준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영역별로 보면 담임교사와의 관계는 융통 구조 혼란 경직 차례로 적응도가 높게 나왔고 나머지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는 융통, 혼란, 구조, 경직 수준으로 갈수록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가설 「Ⅱ-2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가족의 적응성수준으로 전체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검증한 결과는 <표Ⅳ-6>와 같다.

<표Ⅳ-6>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행동 경향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df	F
혼란	79.81	10.63	3	14.758***
융통	84.85	11.81		
구조	79.23	10.32		
경직	71.44	11.30		

*** : $P < .001$

위 <표Ⅳ-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경향은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통수준의 평균이 84.85, 혼란수준에서 평균이 79.81, 구조수준에서 평균 79.23, 경직수준에서 평균 71.44로 융통수준에서 학교생활 적응도가 가장 높고 경직수준에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이는 구조, 융통 수준이 균형을 이룬 가족체제의 집단에 속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경직 혼란 수준이 극단적인 가족체제이어서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적응성수준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영역별로 보면 담임교사와의 관계는 융통 구조 혼란 경직 순으로 적응도가 높게 나왔고 나머지 교우관계, 학습 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는 융통, 혼란, 구조, 경직 수준으로 갈수록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적응성 수준에서 가장 높은 혼란의 단계에서 학교생활 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 융통, 혼란, 구조, 경직의 차례로 나타난 것은 혼란 가족의 무질서한 역할분담, 문제해결 능력 빈약, 가족의 규칙이 일관성 없이 극적 변화가 이루어져서 가족들의 책임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필요에 따른 상황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아동의 학교생활 영역에서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 적응에는 가족체제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는 있으나 적응성과 응집성의 높은 점수에 따라서는 유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과는 정적상관으로서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미희(1997)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결국 가족 구성원들이 보이는 심리적 유대가 아주 강하거나 거의 없을 때, 가족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변화를 철저히 거부하거나 너무 심하게 유동적일 때에 가족 전체는 물론 개인의 발달에 역기능적이고, 이에 반하여 적절한 수준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보이는 균형을 이룬 가족은 가족과 개인에게 모두 기능적이라는 Olson (1983)의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제 유형과 학교생활적응 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여, 가정생활의 유연한 적응력으로 아동들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처치를 하는데 필요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가족체제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인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1 가족체제 유형에서 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유형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유형 차례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II. 가족체제 하위요인들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1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2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304명이며 설문 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가족체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Olson등(1983)이 제작한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평가 척도 (FACES II)'를 임용우(1984) 번안한 것을 초등학교 아동에 맞도록 문장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학교생활 적응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이상필(1990) 학교생활 적응 척도로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 영역을 25문항으로 구성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검사 후 연구자가 채점한 것을 전산처리 되었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F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lson의 가족체제 모형에 근거한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행동 경향은 .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체제 유형과 영역별 학교생활 적응행동은 담임교사와의 관계와 학습활동, 학교행사는 균형을 이룬 가족에서 중간유형의 가족, 극단적인 가족순으로 높았고, 교우관계와 규칙준수의 영역에서는 중간유형의 가족, 균형을 이룬 가족, 극단적인 가족체제 유형 순으로 적응도가 높았다.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균형을 이룬 가족 평균이 81.87이고 중간범위의 가족 평균이 80.88, 극단적인 가족 평균이 72.67로 균형을 이룬 가족의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가족체제 유형의 하위 변인인 응집성수준(이탈, 분리, 연결, 밀착)과 아동의 학교생활을 적응 행동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하여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응집성 수준에서 학교생활 적응행동을 영역별로 보면 담임교사와의 관계와 규칙준수 영역은 연결, 분리, 밀착, 이탈수준 차례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행사 영역에는 연결, 밀착, 분리, 이탈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응집성 수준과 학교생활 적응행동과를 종합해 보면 연결수준 평균 83.06, 분리 수준 평균 80.24, 밀착수준 평균 79.71, 이탈수준 평균 71.61나타나고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장 적응도가 높은 것은 연결수준이고, 가장 낮은 것은 이탈수준이다.

셋째는 가족체제 유형의 하위 변인인 적응성수준(경직, 구조, 융통, 혼란)

아동의 학교생활을 적응 행동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하여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적응성수준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영역별로 보면 담임교사와의 관계만 율통구조, 혼란, 경직 차례로 적응도가 높게 나왔고 나머지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는 율통, 혼란, 구조, 경직의 차례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적응성 수준과 학교생활 적응행동과를 종합해 보면 율통수준에서 평균 84.85, 혼란수준에서 79.81, 구조 수준에서 79.23, 경직수준에서 71.44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Ⅱ에서 응집성과의 관계를 보면 공통적으로 연결수준이 가장 높고, 이탈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적응성과의 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율통수준이 가장 높고 경직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제유형과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행동과의 관계 (김미희1997)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한다는 결과와, 아동이 지각한 가족체제 유형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영준,1997)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가설을 전반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으며 Olson의 가족체제 유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경향이 낮은 가족은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가족 기능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이 가족체제에 의해 학습된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을 규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아동의 행동은 가족이라는 장에서 성장하면서 조건화되고 학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제 유형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준다. 즉 균형을 이룬 가족의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높다.

둘째,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연결, 분리, 밀착, 이탈 차례로 높다.

셋째,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융통, 혼란, 구조, 경직의 차례로 높다.

따라서 가족체제의 유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과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결국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부모의 지지와 통제가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룬 가족의 아동이 건전한 성격 발달을 이룬다는 것을 바탕으로 세운 가설「I 가족체제 유형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 유의하였다.

또한 둘째 가족의 응집성이 중앙수준(연결, 분리)에 위치할 때 각 개인은 다른 가족원들과 적절히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관련을 가져 가족 기능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론에 따라 설정한 가설「II-1 가족의 응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결론 가족의 적응성이 중앙수준(구조, 융통)에 속하는 가족의 경우에 민주주의적인 리더쉽 밑에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과 규칙이 변화되고,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세운 가설「II-2 가족의 적응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역시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을 지도하는데 그가 속한 가족체제를 조명해 보아야 하고, 가정에서는 균형을 이룬 가족 체제를 위한 가정환경 구성에 가족 구성원 전원이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3. 제언

끝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과 도출된 결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후속 되어야 할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우리의 문화와 상황에 적절한 가족체제 유형을 정립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서구의 가족체제 이론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기능적인 가족체제 유형인 조건은 주로 그들의 임상적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다분히 서구사회의 가족형태나 가족윤리와 같은 특정한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족체제 유형을 우리 나라 가족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는 우리 나라 가정에 적합한 기능적인 가족체제 유형을 탐색하고 정립하는 일에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제 유형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질문지를 통하여 가족의 역동적인 체제적 특성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연구에서는 가족이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대부분의 가족체제 이론에서는 가족체제와 가족구성원의 행동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인과관계로 보기보다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체제 유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행동이 관계가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는 단지 두 변인간의 상관만을 말해 주는 것일 뿐 어느 변인이 일방적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봉규(1988). 「교육심리학」, 서울 : 형설출판사.
- 고승자(1986). 가족체제 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 김미희(1977). 초등학생의 지각한 가족체제 유형과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숙(2000). 「가족상담」, 서울 : 학원사.
- 김충기(1988). 「자녀지도와 부모교육」 서울 : 성원사.
- 박성수(1979).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가족치료」, 행동과학연구, 12 통권 113.
- 서영준(1997). 아동이 지각한 가족체제 유형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미라(1989)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가족체제 유형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용복(1984). 적용 및 부적응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필(1990). 학교생활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영(1992). 가족 체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용우(1984). 가족체제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원식(1985) 「교육환경론」, 교육출판사
- 최병일(1987) 가족체제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능력의 차이, 공주사범대학 석사학위 논문.
- 최병일(1987). 가족체제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능력의 차이,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황용연(1985). 「현대 생활지도론」, 교육출판사

- Achenbach, T.(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s : `Boys aged 6 through 11.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46. 478-488
- Barnhill, L.R.Hhealthy family systems. The family Coosdinator, 1979,28,94-100
- Beavers, W.R. & Voeller, M.N.(1983). Family Model :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 Model. Family Process
- Bronfenbrenner, U. Toward a theoretical model for analysi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 social context. In J.D. Glidewell(Ed.),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 Springfield, Ill.: CCharles, C. Tomas,1961.
- Druckman, J.M. A Policy-oriented policy and treatment program for female Juvenile status offend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9, 41, 627-636.
- Foley, V.D. Family Therapy. in R. corsini (ED.). current psychotherapies. I11:F.E. Peacock Publishers, 1979.
- Gates, A. |,et.al., Educationnal Psychology (1950)
- Minuchin,, S. Families and family Therapy. Boston : Havard university, university Press, 1974.
- Moss, R. H.(1976). Family Environment Scare and Preliminary Manual, Pao Alto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Olson, D. H., Russell, C., & Sprenkle, D.(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 Olson, D. H., Russell, C., & Sprenkle, D.(1983).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 Theoretical updates, Family .Process.

- Stierlin, H. Separating Parent and Adolescent(1974). New York :
Quadrang.
- Rogers, C.R.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Houghton Mifflin
Co.1951.
- Russell, c.c.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 II: Empirical
evaluation with families. Family Process, 1979,18,29-45.



<ABSTRACT>

The Relationship of Family System Type
To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Behavior

Ko Ae Soo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o Myeong 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family system type to school life adjustment behavior in order to serve as a basis for more successful educational treatment for children's desirable school life by encouraging them to use their flexible adaptability that comes from family life. The hypotheses were posed as follows:

Hypothesis I. The family system type would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behavior.

I-1. The balanced family system would lead to children's best school life adjustment, followed by the medium type and the extreme type in the order named.

Hypothesis II. The family structure subfactors would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behavior.

II-1. The family cohesion would make a difference to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behavior.

II-2. The family adaptability would make a difference to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behavio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24 selected children in their fifth and sixth year in elementary school in Cheju-do.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computer program. F-test was implemented to verify the hypotheses, 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First, the family system type gave an impact on the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behavior. The children from the balanced families were better at school life adjustment.

Second, in view of the family cohesion, what made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behavior best was the linked family, followed by separated one, attached one and deviated one in the order named.

Third, the flexible family adaptability was associated with their best school life adjustment behavior, followed by confusing, structural and stiffen ones in the order named.

This study might be meaningful as it's proven that children's school life adjustment is the product of the experiences they learn from family system. Namely, children's behavior can be said as the conditioning and learning outcome they encounter in the place called home.

Therefore, it's needed to take a look at children's family system when they are educated in school to adjust themselves to school life. At home, every family member should try to create a balance family system.

부 록

<부록1> 가정생활 42

<부록2> 학교생활 44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자기 가족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이 결과는 선생님이나 가족, 친구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설문지를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애순

♣ 응답하는 요령은 보기와 같습니다.

문항에 따라 정도를 생각하여 가까운 쪽에 보기와 같이 V표를 해주십시오.

보기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 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 령 다
1	숙제를 잘 해온다	1	2	3	4	5

※ 다음의 물음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학년 성별 ① 남 () ② 여 ()

<부록1>

1. 가정생활

번호	문항	전혀 않다	약 그다	간 략	보 통 그다	자 그다	주 령	매우 그다
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누구나 쉽사리 자기 의견을 표시한다.	1	2	3	4	5		
3	집안 식구 보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어려운 일을 의논하기가 더 쉽다	1	2	3	4	5		
4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집안식구 모두가 참여한다.	1	2	3	4	5		
5	우리 식구들은 한 방에 같이 잘 모인다.	1	2	3	4	5		
6	자녀들도 자신의 혼육문제에 대해 의사표시를 한다.	1	2	3	4	5		
7	우리 가족은 일을 함께 한다.	1	2	3	4	5		
8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문제를 의논하며, 얻은 해결책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9	우리 가족은 모두가 제 마음대로 한다.	1	2	3	4	5		
10	우리 가족은 가정일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룬다.	1	2	3	4	5		
11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한 친구들을 서로 알고 있다.	1	2	3	4	5		
12	우리 집의 규칙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	1	2	3	4	5		
13	우리 집에서는 각자의 일을 정할 때 다른 식구들과 상의한다.	1	2	3	4	5		
14	우리 가족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말한다.	1	2	3	4	5		
15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16	문제를 해결 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따른다.	1	2	3	4	5		
17	집안 식구끼리 서로가 매우 친하다.	1	2	3	4	5		
18	우리집의 규율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 그 다	간 략 다	보 통 다	자 그 다	주 요 다	매 우 다
19	집안 식구끼리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낀다.	1	2	3	4	5		
20	우리 가족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21	가족이 내린 결정에 대해 집안 식구 모두가 따른다.	1	2	3	4	5		
22	우리 집에서는 모두가 책임을 함께 진다.	1	2	3	4	5		
23	우리 가족은 서로 함께 여가를 보내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24	우리 집의 규칙은 바꾸기 힘들다.	1	2	3	4	5		
25	우리 가족은 집에서 함께 있기를 꺼린다.	1	2	3	4	5		
26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서로 타협한다.	1	2	3	4	5		
2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서로 인정한다.	1	2	3	4	5		
28	우리 가족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기 꺼려한다.	1	2	3	4	5		
29	우리 가족은 가족 전체가 모두 함께 일하기 보다는 끼리끼리 일을 한다.	1	2	3	4	5		
30	우리 가족의 관심과 취미는 서로 같다.	1	2	3	4	5		

<부록2>

2. 학교 생활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1	2	3	4	5
2	나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다.	1	2	3	4	5
3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매우 반갑다.	1	2	3	4	5
4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매우 친절하다.	1	2	3	4	5
5	내년에도 지금의 담임 선생님이 또 담임 해주셨으면 좋겠다.	1	2	3	4	5
6	나는 우리 반 아이 누구와도 잘 어울려 지낸다.	1	2	3	4	5
7	내가 친구에게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한다.	1	2	3	4	5
8	우리 반 아이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1	2	3	4	5
9	학교에서 놀이나 회의를 할 때 많은 친구들이 내 의견을 잘 따라준다.	1	2	3	4	5
10	우리 반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1	2	3	4	5
11	공부 시간이 재미있다.	1	2	3	4	5
12	숙제와 학습 준비물을 빠짐없이 해 온다.	1	2	3	4	5
13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	2	3	4	5
14	예습과 복습을 꼭 한다.	1	2	3	4	5
15	공부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1	2	3	4	5
16	당번일 때는 아침 일찍 등교하여 정해진 일을 열심히 한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왼쪽으로 다닌다.	1	2	3	4	5
18	학교 물건이나 빌린 친구 물건을 내 물건처럼 소중히 한다.	1	2	3	4	5
19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차례를 지킨다.	1	2	3	4	5
20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통에 버린다.	1	2	3	4	5
21	애국조회시간에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1	2	3	4	5
22	그리기, 글짓기 같은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다.	1	2	3	4	5
23	운동회는 덤고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한다.	1	2	3	4	5
24	봉사활동에 즐거운 마음으로 꼭 참여한다.	1	2	3	4	5
25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등)에 그 뜻을 알고 집에 국기를 단다.	1	2	3	4	5